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
—선교·사목의 지침—



「多様性における一致」

2018년 5월 20일 성령강림 대주일

천주교 도쿄 대교구 교구장

타르시시오 (Tarcisius) 기쿠치 이사오 (Kikuchi Isao S.V.D.)

머리말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VARIETATE UNITAS / 문장 표어 <Motto · Sententiae Latinae>) ” 를 마음에 새기고 저는 작년 12월에 도쿄 대교구 교구장으로 착좌했습니다.

우리 도쿄 대교구는 사회 안에 있는 보통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형성해 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게다가 이 신앙 공동체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선교의 관한 명령¹을 간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사회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늘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대교구를 구성하고 함께 형성해 가는 각 본당 공동체가 지금도 말씀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 공동체는 복음으로 힘입어 통일된 선교 공동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본당 공동체가 먼저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그 의식 안에서 전반적인 일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착좌한 지 아직 반년밖에 되지 않아 대교구 안에 있는 공동체를 하나하나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선교 · 사목의 지침을 상세히 여러분께 드리지 못합니다만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선교 · 사목 지침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가능한 방향만이라도 먼저 명시하고자 합니다.

¹ 예를 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 · 19~20) .

1 : '다양성'과 '일치'

성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12·4~5).

우리는 먼저 하느님이 주신 각자의 개성 안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성은 모여서 마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처럼 연결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즉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양성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하나의 모델 밖에 없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다양성으로 인해 처음으로 풍부한 세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양성은 전체적으로 한 몸을 살리는 부분들의 집합체의 다양성이며, 공동선에 의해서 하느님이 주신 풍성한 은총은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로 사는 개성 자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다양성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일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한 복음에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7·21). 또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는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1코리 12·13).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몸으로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말씀과 성체에 의해 그리스도에 연결돼 일치하라는 것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는 또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코리 10·16, 17).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타올랐고,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남겨진 다른 형제들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 거기를 곧바로 떠났습니다 (루카 24·13~35).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씀과 성체로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고 형제들과 일치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을 말씀과 성체로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고 형제들과 일치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2 :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

복음은 성당에 모여 있는 우리만 아는, 또 가지고 숨기고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교회가 기쁘게 선포하는 이 구원은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당신과 하나 되게 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한 백성으로 불러 모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구원될 수 없습니다. 곧 고립된 개인으로나 자신의 힘만으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 공동체 생활에 따른 복잡하게 얹힌 인간관계를 고려하시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²

그래서 교황님은 “교회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는 자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이가 환대와 사랑과 용서를 받고 복음의 선한 삶을 살도록 격려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³라고도 지적하십니다.

또한 교황님은 “성령께서는 풍요롭고 다양한 은사를 가져다 주시면서 동시에 결코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조화인 일치를 일구어 주십니다. 복음화는 성령께서 교회에 부어 주시는 이러한 다양한 보화를 기쁘게 인정합니다.”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도쿄 대교구 내 본당 공동체도 성령이 이끌어주시고, 자비로써 누구 하나라도 배제되지 않고, 각자가 받은 다양성을 하느님이 주신 풍부한 선물로 받아들여 개인의 일치와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회칙 『하느님은 사랑 이십니다 (DEUS CARITAS EST)』에서 교회의 본질은 다음 세 가지 역할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은 하느님 말씀의 선포 (선교/kerygma-martyria) , 성사 거행 (전례/leitourgia) , 그리고 사랑의 섬김 (봉사/diakonia) 이라는 교회의 삼중 임무로

²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113

³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114

⁴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117

드러납니다. 이 임무들은 서로를 전제로 하며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⁵.

저는 교구의 각 공동체도 이 세 가지 임무를 충분히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임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를 전제로 하며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공동체도 세 임무의 상호 관련성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실현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공동체를 키우기 위해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회의 본질인 세 가지 임무를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항목들은 지금 제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대교구의 최종 선교·사목 지침이 아니라 유동성 있는 앞으로의 검토 과제로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항목에 대해 각각 관계가 있는 신도·수도자·성직자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검토하고 식별을 거듭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 나가는 노력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1 :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함"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 '복음 선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 안에 있는 기존의 조직으로서 이미 다양한 과제가 주어져 있는가 하면, 동시에 교회를 둘러싼 사회의 현실로 인해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대응할 때 우리는 최우선으로 실시해야 할 '복음 선포'의 역할을 미루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복음 선포' 명령은 최우선이며 뒷전으로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⁵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DEUS CARITAS EST)』 25

'복음 선포'에 최우선적으로 임하고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에 두고 실현하고 싶습니다.

- (1) 수도회·선교회 등의 울타리를 넘어 대교구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목 협력 체제의 구축
- (2) 앞으로의 외국인 사목 방향을 확인하고 명백화 및 재검토
- (3) 지속적인 신앙 키우기를 위한 준비와 실현
- (4) 현행 '선교협력체'⁶의 평가와 재검토
- (5) 천주교 제반 시설과 본당·대교구와의 연계 모색

3-2 : "성사를 거행함"

전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생활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다"⁷ 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현장은 지적합니다. 게다가 전례 현장은 "전례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거처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 전례는 동시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힘을 북돋워 주고 또 그렇게 하여 교회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족들을 향하여 세워진 깃발로 보여 준다"고⁸ 지적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전례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개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⁶ 대교구내 성당들이 3~4 개씩 22 지구로 나뉘어 각 지역마다 지역내 과제를 검토한다.

⁷ 전례현장 (*Sacrosanctum concilium*) 2

⁸ 전례현장 (*Sacrosanctum concilium*) 2

동시에 힘찬 복음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 항목들을 중심에 두고 실현하고 싶습니다.

(6) 다양하고 일년 내내 이어지는 본당 연례 행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부해지는 공동체를 양성함

(7) 신앙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전례를 만들

(8) 다문화 사회 안에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례를 만들

3-3 : "사랑의 섬김 (실천/봉사) "

사도행전에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사도2·44~45)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서로 의지해 왔습니다.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전체적으로 "성사와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듯이 사랑의 실천도 소홀히 할 수 없" ⁹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도쿄 대교구 내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별써 개인적으로 다양한 사랑의 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교구의 조직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종합하여 대교구가 교회 공동체 전체로서 사랑의 봉사, 사랑의 실천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⁹ 『하느님은 사랑 이십니다 (DEUS CARITAS EST)』 25

그래서 다음 항목들을 중심에 두고 실현하고 싶습니다.

(9) 대교구 전체를 뒤돌아보고 '사랑의 섬김' 실천을 재검토하고 서로를 연계 강화함

(10) 동일본 대지진에 대처해 배웠던 미래를 향한 방재 및 훈련 그리고 봉사활동

4 : 세 가지의 개별 과제에 대해서

개별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음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먼저 개요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4-1 : 수도회 · 선교회 등의 울타리를 넘어 대교구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목 협력 체제의 구축

도쿄 대교구에는 현재 남자 수도회 · 선교회가 24, 여자 수도회 · 재속회가 60, 그 거점 (본부) 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일본 천주교 주소록) .

이미 2002년에 발표된 『복음적 사명을 산다』¹⁰에서 선교협력체를 새로 편성하기 위해 수도회의 협력에 대한 큰 기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구내 여러 본당은 수도회 공동체나 시설을 그 모체로 설립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각 수도회는 창립자의 카리스마와 수도생활의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존중하면서 교구라는 공동체의 복음화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 할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상호협력이란 사제들끼리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수도회

¹⁰ 도쿄 대교구 전 교구장 베드로 오카다 다케오 대주교 지음 (2002년 6월 29일 발행)

수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교구 전체에 복음을 선포하고 사목을 하는 협력체제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각 수도회는 새로운 성소자가 없는 것, 회원들의 고령화와 하늘나라에 가는 회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 수도회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시설의 유지가 어렵게 되는 것 등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먼저 공유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데 대해 교구로서 '수도회 협의회'의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2 : 앞으로의 외국인 사목 방향을 확인하고 명백화 및 재검토

일본 전체를 바라볼 때 외국인 거주자는 이미 200만명을 넘어가 일본 농업종사자수와 같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도쿄 대교구 지역 내에는 옛날부터 다양한 국적·민족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천주교 신자들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 주교단은 1989년 주교 총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것"이 일본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1993년에는 『국적을 넘어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를 발표하고 일본 교우들에게 "일본으로 이동해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받아들이고 다양한 차이점과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요구했습니다.¹¹

도쿄 대교구에서는 먼저 1990년에 '국제 사목 센터'가 설립된 후 지금은 '가톨릭 도쿄 국제센터 (Catholic Tokyo International Center / CTIC)'로서 교구내 다양한 외국인 문제·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복음적 사명을 산다』가 발표됨에 따라

¹¹ 『도쿄 대교구 뉴스』 제276호 / 2010년 9월 1일 발행

"외국인 사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도쿄 대교구 사목 우선 과제 세 가지 중의 하나로서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사목은 이미 '가톨릭 도쿄 국제센터 (CTIC)'가 담당하고 교구로서 대응이 시작돼 있습니다. 이 활동을 교구 활동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미 수많은 본당에서 외국어 미사가 정기적으로 봉헌되고 외국인 공동체가 존재하는 본당도 있습니다. 외국어 미사는 대부분 우연히 해당 본당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거나 외국어 미사가 필요하니까 사제를 초빙한 데서 시작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제들의 인사이동으로 자주 외국어 미사가 없게 되는 등 외국인 사목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에 온 수많은 외국인의 영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목 태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구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직면하는 과제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 인원수 증가에 따라 대응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CTIC는 그 활동을 시작한 지 곧 3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 다양화 된 현실 앞에 서서 그 활동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인의 영적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목적이 교구 공동체 전체와 연대를 잃고 마치 독립된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내는 것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정착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주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에게는 각별히 배려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본당 공동체와 연계해 "외국인의 영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마다 모국어로 전례가

제공되는 성당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교우들이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른 성당을 찾아 헤매 다니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외국인 교우들의 사목을 담당하거나 외국어 전례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모아 앞으로의 외국인 사목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4-3 : 지속적인 신앙 키우기를 위한 준비와 실현

2002년에 발행된 『복음적 사명을 산다』에는 세 가지 최우선 과제가 제기돼 있었지만, 그 두 번째로 '교회의 복음적 사명에 종사하는 평신도의 양성'을 올리며 지속적인 신앙 양성의 필요성과 천주교 신자로서의 소명이 중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당 신자들은 사제들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관리나 건물관리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들 뿐만 아니라 교회 차체와 복음 선포의 사명에 관한 부분에서입니다.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대상으로 한 교리 교육과 전례 봉사자 교육 (공소 예절 등을 포함) , 병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외로운 사람과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해 늘 봉사하는 사람, 또 작은 그룹을 만들어 놓고 삶과 신앙의 양립에 시달리는 자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 그런 그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적인 사람 등.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걸맞는 적절한 양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교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 가운데서 그 임무를 완수하려고 봉사하는 신앙인들의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 방법을 기획 세우고 실시함으로써 복음 선포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다양성과 일치가 확보되게

됩니다.

도쿄 대교구에서는 이미 사목국 평신도신앙양성위원회가 "평신도 교리반 담당자를 양성하는 강좌"라는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신이 소속하는 본당이 아니라 교구가 지정한 본당에 가서 교리반을 담당하게 되는 평신도 봉사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준비된 연속 강좌입니다.

한 때 나이가타 교구장으로서 일했던 저는 매월 발행 되는 『도쿄 대교구 뉴스』를 볼 때마다 거기에 게재되는 다양한 연수회나 강연회 등 그 내용의 풍요로움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대교구로서 향후 본당 공동체의 다양한 수준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강좌를 만들고 싶습니다.

본당 공동체의 다양한 수준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저는 평신도신앙양성의 방법에 대해 여기서 특히 한 가지만 명시해두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기저기서 화제에 오르는 '네오까떼꾸매나도의 길' (The Neocatecumenal way)에 관한 것입니다.

'네오까떼꾸매나도의 길'은 1964년에 스페인 평신도 Kiko Argüello와 Carmen Hernández에 의해 설립된 것이며 "세례성사 받기 위한 준비와 그 후에 신앙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그들의 규칙).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히로시마 교구에서 그 활동이 시작되어 그 후 다카마쓰 교구를 비롯한 일부 교구 곳곳에서 활동을 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8년에 그 규칙이 교황청 평신도평의회에 의해 인증 받았고 2010년 말에는

그들의 교리 내용도 교리성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에 의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천주교의 공식적으로 인증된 존재입니다. 도쿄 대교구에도 이미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 본당에 있습니다.

그들의 규칙 제1조 제2항에는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세례 성사 받기 위한 준비와 그 후에 신앙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방식으로 해당 교구 교구장인 주교에게 제공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교구 주교의 권한으로 "교구의 실천을 인허가해주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방식을 도쿄 대교구에서 인허가 해주는 권리이 도쿄 대교구 교구장인 제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저는 도쿄 대교구에서 그들의 방식에 인허가를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인허가를 해줄 생각도 없습니다. 또 그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어떤 기성 방법이나 특정 운동에 의존할 생각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평신도 양성은 각 본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본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구는 하느님의 백성의 일부분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불리 모아져서, 함께 도와주면서 서로가 구원을 목표로 삼아 걷는 형제자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본당 공동체의 존재없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구 공동체 안에서는 다양한 카리스마를 지닌 수도회 · 봉헌생활자모임 · 재속회 · 각종공동체 · 신심회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구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그 다양성 이야기로 영적인 건전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다양성 안에서 특정 카리스마 만이 우선되거나 그 카리스마의 정통성 만을 주장하거나 하는 것은 영적 건전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풍부하게 성장하고 본당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앞날을 생각할 때 성령의 이끄심에 신뢰하면서 항상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것을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각자 하느님이 주신 개개인의 카리스마를 살아 그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교구 공동체가 살아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적 사명을 산다』 에서는 또 한 가지 최우선 과제가 제기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 들거나 마음에 상치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봉사' 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의 섬김 (설천/봉사) ” 의 과제로서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평가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다가 이러한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는 ‘선교협력체’가 있지만 그것도 이미 언급했듯이 일단 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사제평의회와 선교사목평의회, 또 다른 방법으로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적이며 구체적인 지침으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작업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과제를 열거해보았지만 가장 근본인 것은 우리 도교 대교구 공동체가 복음 선포를 진지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그러한 사명을 사는 것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디 저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면서 복음 선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람이 되신 하느님 말씀의 어머님이시며 교회의 어머님이신 성모 마리아님!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신뢰하며 성모님의 신앙과 용기를 본 받아 전구를 청하며 오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향해 가기를 기도하면서.